

CODEX 대비 전통식품의 규격화 전략

정 승 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Codex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로 불리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라틴어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의 뜻으로서 Codex 규격기준이라 함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기준을 의미하며, 현재 각국의 식품 관리지침으로 수락(Accept)하여 적용하는 권장(Recommendation) 규격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 SPS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서 국제간 식품교역시 식품검사의 규격기준으로 Codex 규격기준을 준용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봄에 따라 Codex 규격기준은 국제간에 지켜야 할 강제 규격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WTO(국제무역기구) 체제 출범과 더불어 회원국 국가표준의 상호조화와 관련되어 그 기준 규격으로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 들어 자국의 이익 반영을 위한 규격기준의 개발과 개정진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95년 이후 약 6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대표적 전통식품인 김치의 Codex규격화 작업을 제24차 Codex 총회(2001.7.2~7.7, 스위스 제네바)에서 Codex 규격안으로 최종화 정시켰는 바, 우리에게 김치의 Codex 규격화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그 첫째는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절임류와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김치에 대한 규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김치의 특징인 자연발효식품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위생적 안전성과 다양한 첨가물 사용 허용을 통한 제품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수입국에게 합리적인 김치기준을 제공하여 김치의 수출증대 및 국제적 상품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소중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고 먹거리 중에서도 김치뿐만 아니라 인삼, 장류, 불고기, 한과 및 삼계탕 등 식품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WTO 체제의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는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는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및 산업계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연계성을 가지고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치 등 전통식품의 세계 식품화” 혹은 “식문화의 수출”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것만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곤 한다. 우리도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전통식품의 모습이 변해왔고 다양화되어 있듯이 세계의 시장도 다양한 모습의 한국전통식품을 원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이 찾지 않는 한국의 전통식품은 더 이상 세계인의 식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국수적 입장의 시각에 집착하기보다는 세계인의 기호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학계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산업계는 관련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류”의 열풍이 불어닥친 중국시장도, 그리고 일본시장도 연구개발, 시장개척과 마케팅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수입국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